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0, pp.93-123
<https://doi.org/10.29212/mh.2019..110.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후삼국 통일전쟁과 운주전투

신성재*

1. 머리말
2. 왕건과 궁준의 1차 운주전투
3. 왕건과 견훤의 2차 운주전투
4. 맺음말

1. 머리말

고려와 후백제가 주도하던 후삼국 통일전쟁은 920년 후반대로 접어들면서 전방위적인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다. 내륙의 요충지는 말할 것도 없고 서남해의 해안·도서 지방에서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였다. 경북지역 교통의 요지인 안동·대구·구미 일대와 바닷길로 통하던 서남해역 나주, 남해안의 전략거점 진주지방, 충청지역에 위치한 공주·청주·아산·홍성 등은 그 치열한 전투의 공간이었다. 이 중에서 충청

* 해군사관학교 軍史戰略學科 교수

지역에 위치한 지방은 고려와 후백제가 군사적으로 접경지대를 형성하던 곳이었다. 따라서 장기간 대치 정국이 조성되는 가운데 현지의 유력자 포섭과 지배권 장악을 둘러싸고 대소 규모의 전투가 발생하였다.

후삼국 통일전쟁 기간 동안 충청지역에서 발발한 의미 있는 전투를 꼽는다면 단연 운주전투(運州戰鬪)를 빼놓을 수 없다. 문경현은 일찍이 이 전투의 중요성과 파급 효과에 주목하여 공산전투(公山戰鬪)·고창전투(古昌戰鬪)와 더불어 후삼국 통일전쟁의 3대 전투로 명명하였다.¹⁾ 운주전투가 후삼국 통일전쟁의 흐름에 분수령이 될 정도로 결정적인 전투였음을 시사하는 견해가 아닐 수 없다.

운주전투가 이처럼 중요한 전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성과는 많지 않다. 고려 건국기부터 근대까지 운주지방의 변화상을 정리한 글 속에서 거론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²⁾ 후삼국 통일과정에서 나타나는 운주지방의 동향과 역할, 현지 세력가였던 공준(競俊)의 활동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언급되기도 하였다.³⁾ 또 공준이 왕건과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운주지방이 주요 거점 도시로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추적한 성과 속에서 전투 내용이 소개되기도 하였다.⁴⁾ 근래에는 이 시대 전쟁을 다룬 학술서와 대중 서적들이 출간됨에 따라 전투의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⁵⁾ 전쟁사적 차원에서 전문으로 작성한 논고도 제출되었다.⁶⁾ 이에 따라 후

1) 文暉鉉, 『高麗太祖의 後三國統一研究』, 螢雪出版社, 1987, 137쪽.

2) 윤용혁, 「지방제도상으로 본 홍주의 역사적 특성」 『홍주문화』 13, 홍성문화원, 1997.

3) 김갑동, 「고려초기 홍성지역의 동향과 지역세력」 『史學研究』 74, 韓國史學會, 2004.

4) 윤용혁, 「나말여초 洪州의 등장과 運州城主 競俊」 『한국중세사연구』 22, 한국중세사학회, 2007.

5) 이도학, 『궁에 진헌 왕건과 열정의 시대』, 김영사, 2000; 임용한, 『전쟁과 역사 - 삼국편』, 해안, 2001; 류영철,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研究』, 景仁文化社, 2004; 문안식, 『후백제 전쟁사 연구』, 해안, 2008;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해안, 2014; 이도학, 『후삼국시대 전쟁 연구』, 주류성, 2015.

6)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공준의 역할」 『軍史』 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삼국시대 운주의 위상과 동향, 공준의 존재 양태와 운주전투에서의 역할, 전투의 전개 과정, 운주의 성장과 거점 도시화 과정 등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검토 및 보완해야 할 점이 남아 있다. 후삼국 통일전쟁의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전투의 발발 배경과 영향, 전쟁사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왕건과 운주성주(運州城主) 공준, 왕건과 견훤이 927년과 934년 두 차례에 걸쳐 운주지방에 대한 지배권 장악을 둘러싸고 전투를 벌였던 전략적인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운주전투가 발발하던 시점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지상전과 해상전의 전개 양상을 두루 포괄해야만 전투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후삼국 통일전쟁 전체를 아우르는 안목에서의 서술이 요구된다. 운주전투의 전략적인 배경에 주목하는 문제의식과 선행 연구성과에 의지하여 1·2차 전투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⁷⁾

논지 전개는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927년에 발발한 제1차 전투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왕건과 공준이 벌인 전투의 전략적 배경을 후삼국 통일전쟁의 추이 속에서 정리한 다음 전투 이후 공준의 행보와 운주지방의 동향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3장에서는 왕건과 견훤이 벌인 934년 2차 전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백제 수군이 932년 가을에 고려의 왕도(王都)로 통하는 예성강 수역과 서해 중부 해역을 대대적으로 공략한 사실에 주목하여 전투의 전략적인 배경을 해상전의 전개 양상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이다. 또 전투의 진행 과정을 전술적인 측면에서 상세히 분석하고, 고려의 명장 유금필이 군사적으로 수행한 역할, 전투의 결과가 이후로 전개된 통일전쟁의 흐름에 끼친 영향도 살펴볼 것이다. 이 시대 전쟁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의 아낌없는 비판을 바란다.

7) 1·2차 전투의 명칭 구분은 윤용혁의 견해를 따른다(윤용혁, 앞의 논문, 2007, 15쪽).

2. 왕건과 공준의 1차 운주전투

후삼국 통일전쟁이 격화되어 가던 920년대 후반, 오늘날의 홍성 지방에 해당하는 운주에서 큰 전투가 발발하였다. 927년(태조 10) 3월에 발발한 1차 운주전투가 그것이다. 이 전투에는 고려 태조 왕건과 당시 운주 지방의 세력가로 활동하고 있던 공준이 최고 지휘관으로 참가하였다. 그런데 왕건과 공준이 벌인 1차 운주전투는 전투의 정황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고려사』 기록이나 『고려사절요』⁸⁾의 기록 모두 짤막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고려사』에 전하는 전투 기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신유일에 왕이 運州로 들어가 그 성주 競俊을 성 아래에서 격파하였다.⁹⁾

독자들이 단출한 전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뿐이다. 왕건이 927년 3월에 군사들을 동원하여 운주를 공격하였고, 이 과정에서 운주성주 공준이 거느린 군사들을 성 아래에서 격파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록상의 불비함은 자연스럽게 몇 가지 의문을 갖게끔 한다. 우선적으로 드는 의문은 왕건이 왜 운주지방을 정벌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또 다른 의문은 왕건이 운주를 정벌한 것이 927년 3월인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정벌을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마지막 의문은 전투가 끝난 뒤 공준이 보인 행보와 운주지방의 동향이다.

먼저 왕건이 왜 운주를 정벌하였는가에 대한 의문부터 풀어가보자. 이와 관련해서는 전투가 발발하기까지 나타나는 충청지역의 동향, 운주의 정치적 상황과 군사전략적 위상 등을 살펴보는 가운데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8) 『高麗史節要』 권1, 태조신성대왕 10년 3월, “王敗運州城主競俊於城下”.

9) 『高麗史』 권1, 세가1 태조 10년 3월, “辛酉 王入運州 敗其城主競俊於城下”.

선행 연구를 통해 잘 밝혀진 것처럼, 궁예가 집권하던 918년 6월까지 충청지역의 여러 지방들은 궁예정권의 영향력하에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충청지역이 궁예정권에 우호적이었던 것은 궁예가 세력을 확장하던 과정에서 이 지역의 세력가들과 공고한 인적관계를 맺고, 여러 지방들을 복속하면서 투항해온 세력들을 적극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궁예는 청주의 지방세력들과 정권을 수립하던 초기 단계부터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¹⁰⁾ 궁예정권이 충청지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남진공략을 추진한 것은 패서지역(溟西地域)을 확보하여 송악(松嶽)을 도읍으로 삼은 뒤부터였다.¹¹⁾ 관련 사서에서는 그 시기를 900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경신에 궁예가 태조에게 명하여 廣·忠·靑 3주와 唐城·槐壤 등을 정벌토록 하여 모두 평정하였다. 그 공으로 (태조에게) 아찬을 제수하였다.¹²⁾

궁예의 명을 받아 출정한 왕건이 900년에 정벌한 지역은 광주(廣州)·충주(忠州)·청주(靑州)·당성(唐城)·괴양(槐壤) 등지였다. 왕건이 정벌한 지방들 중에서 광주는 오늘날의 경기도 하남시 일대를 가리킨다. 충주는 당시 국원성(國原城)이 있던 곳이었다. 당성은 신라시대 이래 중국과의 해상교통에서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던 오늘날의 화성시 남양만 일대를 말한다. 왕건이 정벌한 여러 지방을 통해볼 때 궁예정권이 한강으로 통하는 경기도 중북부의 일부 지방과 서해와 바닷길로 연결되는 경기 남서부의 해안지방, 중부 내륙의 북쪽에 위치한 충주 지방 등을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 궁예와 청주 지방세력과의 공고한 인적 관계 형성은 다음 성과를 참조. 申虎澈, 「弓裔와 王建과 淸州豪族」 『中原文化論叢』 2·3, 忠北大中原文化研究所, 1999, 73~79쪽(申虎澈, 『後三國時代 豪族研究』, 개신, 2002, 323~330쪽).

11) 『三國史記』 권12, 효공왕 2년, “弓裔取溟西道 及漢山州管内三十餘城 遂都於松岳郡”. 申虎澈, 「弓裔의 政治的 性格」 『韓國學報』 29, 一志社, 1982, 42쪽.

12) 『高麗史』 권1, 세가1 태조 광화 3년, “庚申 裔命太祖 伐廣忠靑三州及唐城槐壤等郡縣 皆平之 以功授阿察”.

경기 일부 지역과 함께 궁예정권은 청주 지방과 오늘날의 괴산에 해당하는 괴양 지방도 복속하였다. 이 지방들은 모두 충청지역에 속한다.¹³⁾ 궁예가 정권 초기부터 충청지역에 속하던 주요 지방들을 석권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그런데 이 시기 궁예정권의 영향력하에 들어온 지방은 군사적 위력에 의해서만 복속된 것은 아니었다. 현지의 유력자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회유와 포섭이 병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¹⁴⁾ 동일한 사실을 전하는 다른 사서에는 “겨울 10월에 국원(國原)·청주·괴양의 적수(賊帥) 청길(淸吉)·신훤(莘萱) 등이 성을 바치고 궁예에게 항복하였다.¹⁵⁾”고 기록되어 있다. 해당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세력가들이 궁예정권에 자진하여 항복해오던 사정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다.

그렇다면 운주지방도 이 시점에 즈음하여 궁예정권의 영향력하에 놓이게 되었던 것일까?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기 궁예정권이 정벌한 지역적 범위에 운주지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충북지역에 해당하는 충주·청주·괴산 지방만이 언급되고 있을 뿐 그 이서(以西) 방면에 위치한 충남지역의 지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오늘날의 충남지역에 위치한 일부 지방이 궁예정권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이 시점으로부터 4년이 지난 904년 즈음이 아닌가 추정된다. 904년, 궁예는 청주지방에 거주하던 인호(人戶) 1천을 철원으로 사민하면서 천도를 추진하였다.¹⁶⁾ 같은 시기의 기록을 보면 충남지역에서 활동하던

13) 조인성, 『태봉의 궁예정권』, 푸른역사, 2007, 193쪽. 이 중 괴산(괴양)은 오늘날의 충청지역에 속하지만 문경·상주 등과 친연성이 많은 지방이었다.

14) 金甲童, 「高麗建國期の 淸州勢力과 王建」 『韓國史研究』 48, 韓國史研究會, 1985, 36쪽.

15) 『三國史記』 권12, 효공왕 4년, “冬十月 國原菁州槐壤賊帥淸吉莘萱等 舉城投於弓裔”.

16) 『三國史記』 권50, 열전 궁예, “天祐元年 甲子 … 秋七月 移靑州人戶一千 入鐵圓城爲京”. 궁예정권이 904년에 철원으로 천도한 배경과 과정은 丁善溶, 「弓裔의 勢力形成 過程과 都邑選定」 『韓國史研究』 97, 韓國史研究會, 1997; 신성재, 「궁예정권의 철원 천도와 전쟁사적 의미」 『韓國史研究』 158, 韓國史研究會, 2012;

공주장군(公州將軍) 홍기(弘奇)가 투항하고 있음이 확인된다.¹⁷⁾ 공주장군 홍기가 자진하여 투항해온 기록은 공주를 비롯한 인접한 지방들 역시 궁예정권에 복속하던 분위기를 짐작케한다. 그러나 기록상 공주지방만이 언급되었을 뿐 인접한 천안이나 아산 등 운주와 인접한 지방들의 동향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궁예의 위사(衛士)로 활약했던 박술희(朴述熙)가 태안반도 북단에 위치한 혜성군(檜城郡) 출신이고,¹⁸⁾ 마찬가지로 궁예의 치하에서 활동한 복지겸(卜智謙)이 면천군(沔川郡 : 당진) 출신인¹⁹⁾ 점을 감안하면 궁예정권의 영향력은 태안·당진이 위치한 충남 서해안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충남 서해안 지방의 동향이 이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들과 인접한 운주지방은 궁예정권에 복속되거나 그 영향력하에 있었던 것 같지 않다. 무엇보다도 운주가 궁예에게 복속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이 그렇다. 또 당시 지방사회를 이끌어가던 호족 세력들이 존립과 안위를 위해 정치적 향배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상황도 고려하면 궁예가 통치하던 기간 중 운주지방은 태봉(泰封)과 후백제 그 어느 정권에도 귀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인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²⁰⁾

운주지방이 특정 정권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918년 6월 궁예정권이 몰락하는 상황에서 마련되었다. 왕건이 거병하여 동년 8월에 고려를 건국하자 운주는 그동안 유지해온 독자적인 노선을 철회하였다. 공주를 비롯하여 인접한 지방들이 동요하면서 후백제 쪽으로 붙자 운주도

서금석, 「弓裔의 國都 선정과 國號·年號 제정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42, 한국중세사학회, 2015 참조.

17) 『三國史記』 권50, 열전50 궁예, “伐取尙州等三十餘州縣 公州將軍弘奇來降”.

18) 『高麗史』 권92, 열전5 박술희; 鄭淸柱,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 一潮閣, 1996, 120쪽.

19)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9, 충청도 면천군 산천. 면천군은 신라시대의 혜성군을 말한다(鄭淸柱, 앞의 책, 1996, 126쪽)

20) 이에 비해 당시 운주지방이 궁예 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김갑동, 앞의 논문, 2004, 139쪽; 윤용혁, 앞의 논문, 2007, 9쪽).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계해일에 熊州와 運州 등 10여 군현이 叛하여 百濟에 붙었다. 전 시중 金行濤를 東南道招討使知牙州諸軍事로 임명하였다.²¹⁾

궁예가 실각하자 충청지역의 지방들이 보인 태도는 새롭게 등장한 고려를 대신하여 후백제를 선택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지역적 규모는 웅주(熊州 : 공주), 운주 등 10여 주현에 달하였다. 이는 궁예의 실각이라는 정변과 혼란이 접경지역의 호족들을 동요시켰기 때문으로, 후백제의 군사적 위협을 염려한 충청지역의 세력가들이 자신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²²⁾ 운주 역시 같은 정치적 선택을 하였다. 충청지역에 속한 여러 지방들이 후백제 쪽으로 선회하는 태도를 보이자 더 이상 독자적으로 존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운주의 호족들은 이들과 보조를 같이 하였다.

웅주·운주 등 충청 접경지역의 호족들이 후백제 쪽으로 돌아서자 왕건은 군사적으로 토벌하는 강경책으로 맞섰다. 시중을 역임한 김행도(金行濤)를 東南道招討使知牙州諸軍事(東南道招討使知牙州諸軍事)에 임명하여 아산과 공주 일대를 토벌하도록 하였다. 이는 왕건이 충청지역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김행도를 파견한 이듬해 919년 8월, 왕건은 귀순과 반역 사이를 오가던 청주지방에 행차하여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오산성(烏山城)을 예산현(禮山縣)으로 고치고 대상 애선(哀宣)·홍유(洪儒) 등으로 하여금 지역 유민 500여 호를 안집하도록 하였다.²³⁾ 아산과 예산 일대에 집중된 왕건의 정벌활동은 그 이후로도 이어졌다. 925년 10월, 왕건은 유금필(庾黔

21) 『高麗史』 권1, 세가1 태조 원년 8월, “癸亥 以熊運等十餘州縣 叛附百濟 命前侍中金行濤 爲東南道招討使知牙州諸軍事”.

22) 윤용혁, 앞의 논문, 2007, 9쪽.

23) 『高麗史節要』 권1, 태조 2년 8월.

彌)을 정서대장군(征西大將軍)에 임명하여 연산진(燕山鎭: 충북 문의)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유금필은 이 전투에서 후백제의 장수 길환(吉喚)을 죽이고, 임존군(任存郡: 예산군 대흥)마저 공격하였다. 그는 임존군 전투에서 후백제군 3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는 전과를 올렸다.²⁴⁾

왕건은 충청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벌전으로 건국 초기에 후백제 쪽으로 선회하였던 내륙의 공주지방과 서해의 아산만과 연결되는 예산·아산 지방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왕건의 집념 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백제를 선택한 운주지방의 항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 같다. 기존 연구에서는 유금필군이 임존성을 함락한 것을 두고 고려가 내포지방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성공하고, 운주 또한 고려측의 사정권하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²⁵⁾ 운주가 고려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상황이라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과연 운주가 고려의 영향권에 들어간 것인지는 의문이다. 고려가 1차 운주전투가 발발하던 927년 시점까지 아산과 그 주변 지방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운주 일대는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최후의 방책으로 이 지방을 정벌하는 군사활동을 벌였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이 점은 왕건이 927년에 1차 운주전투를 계획한 목적이 이 지방을 복속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일깨워준다. 따라서 왕건은 회유나 포섭을 시도하기보다는 운주성을 격파하는 전투를 벌였던 것이다.

왕건과 궁준이 벌인 1차 운주전투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점은 왜 하필이면 927년 3월에 전투가 발발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고려가 해상과 육상을 무대로 추진하던 전쟁 수행전략과 연관성이 있지 않았나 여겨진다. 아래 기록을 통해 그 전략적인 배경을 유추해봄직하다.

24) 『高麗史』 권1, 세가1 태조 8년 冬 10월; 『高麗史』 권92, 열전 5 유금필.

25) 김갑동, 「百濟 이후의 禮山과 任存城」 『百濟文化』 28,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999, 236~237쪽.

여름 4월 임술일에 해군장군 英昌과 能式 등을 보내어 舟師를 거느리고 가서 康州를 공격하게 하였다. (원정군은 轉伊山·老浦·平西山·突山 등 4개 鄉을 함락시키고 사람과 물자를 노획하여 왔다.²⁶⁾

위는 1차 운주전투가 있던 927년 3월 바로 다음 달에 나오는 기록으로 강주(康州: 진주)를 대상으로 벌인 고려의 수군활동이 주목된다. 왕건이 파견한 해군장군 영창(英昌)과 능식(能式) 등은 원정군을 거느리고 강주와 그 남단에 위치한 여러 도서지방을 정벌하고 귀환하였다. 왕건이 수군을 동원하여 강주를 원정한 것은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호족들을 포섭하면서 경남 해안지방과 경북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병참운송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²⁷⁾ 그 전략적 목표는 보기병과 수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경남 강주와 경북 내륙 지방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병참운송망을 구축함으로써 신라 방면으로 향하던 후백제의 군사활동을 억제하고, 후삼국 통일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²⁸⁾

이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군활동을 추진하기 불과 1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왕건은 운주를 정벌하는 군사활동을 단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운주 정벌이 강주를 원정하던 수군활동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아마도 그것은 경상 지역 병참운송망 구축을 통해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던 왕건이 그와 같은 전략적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운주지방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군사활동을 벌였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왕건이 운주를 정벌하던 927년 이전까지 이 지방은 고려에 복속된 상태가 아니었다. 왕건이 918년에 고려를 건국하자 후백제를 지지하는 방향으

26) 『高麗史』 권1, 세가1 태조 10년, “夏四月壬戌 遣海軍將軍英昌能式等 率舟師往擊康州 下轉伊山老浦平西山突山等四鄉 虜人物而還”.

27) 신성재, 「고려와 후백제의 공산전투」 『한국중세사연구』 34, 한국중세사학회, 2012(『후삼국 통일전쟁사 연구』, 해안, 2018, 37쪽).

28) 위와 같음.

로 정치적 노선을 바꾼 곳이었다. 운주가 후백제의 영향권하에 있던 상황은 수군으로 강주 원정을 추진하던 왕건에게 군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였음직하다. 왕건이 당면하고 있던 군사적 부담은 운주와 인접한 해안 지방을 복속함으로써 해소될 것이었다. 해륙상의 주요 전략거점을 둘러싸고 전개되던 후삼국 통일전쟁의 흐름 속에서 왕건은 927년 3월에 운주를 정벌하는 군사활동을 벌였던 것이다.

한편 1차 운주전투 이후로 나타나는 공준의 정치적 행보와 운주 지방의 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점이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운주성주 공준은 운주지방에 도착하면서 이 지역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호족이었다.²⁹⁾ 이에 주목해보자면 운주성주라는 직함은 중앙정부에서 부여한 것이 아닌 당시 운주지방을 지배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공준이 자칭하였을 가능성이 있다.³⁰⁾ 운주지방의 실력자 공준은 927년 왕건과의 운주성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그런데 전투 이후 그의 종적은 한동안 묘연하다. 그의 이름이 다시금 사서에 등장하는 것은 후삼국 통일전쟁의 최후 결전으로 알려진 936년 일리천전투에서였다.³¹⁾ 이 전투에서 공준은 대상(大相)의 관계(官品)을 띠고 명주(溟州: 강릉) 지역의 최대 호족인 왕순식(王順式)과 함께 고려군의 중군(中軍) 소속 기병 2만을 지휘하는 장수로 출전하고 있다.³²⁾ 공준이 936년에 대상의 관품을 지니고 일리천전투에 참가한 것을 보면 어느 시점엔가 후백제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왕건에게 귀부하여 고려의 권력구조하에서 일정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³³⁾

공준이 고려에 귀부한 시점이 언제였는지 명확하게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왕건이 공준의 군사들을 격파하여 운주성을 확보하고,

29) 윤용혁, 앞의 논문, 1997, 23쪽.

30) 윤용혁, 앞의 논문, 1997, 25쪽.

31) 『高麗史』 권2, 세가2 태조 19년 秋 9월.

32) 『高麗史』 권2, 세가2 태조 19년 秋 9월. 신성재 「일리천전투와 고려 태조 왕건의 전략전술」 『韓國古代史研究』 61, 한국고대사학회, 2011(앞의 책, 2018, 78쪽).

33) 윤용혁, 앞의 논문, 1997, 20쪽.

이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였을 것으로 보아서³⁴⁾ 아마도 왕건의 1차 전투에서 패배한 직후가 아니었나 추정된다.³⁵⁾ 왕건의 재차 출정으로 2차 운주전투가 발발하던 934년 즈음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으나,³⁶⁾ 만약 그렇게 파악한다면 1차 전투에서 패배한 927년부터 934년까지 공준의 행적이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합리적으로 유추해본다면, 공준은 1차 전투 직후 고려에 귀부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공준이 떠난 자리에는 고려에 우호적인 인물을 내세워 성주 임무를 수행케하였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현전하는 자료상 그와 같은 인물의 실체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운주성을 관할하는 새로운 인물을 성주로 삼은 뒤, 왕건은 이듬해 운주 옥산(玉山)에 성을 쌓고 지키는 군사들을 배치하였다.³⁷⁾ 이 성은 현재의 홍성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용봉산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⁸⁾ 왕건이 옥산에 성을 쌓고 군사들을 배치한 것은 후백제와의 전쟁에서 방어망을 공고하게 하는 한편 운주성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고려한 것이었다.³⁹⁾

끝으로 운주성주 공준과 홍규(洪規)가 동일한 인물이었는가에 대해 알아보자. 선행 연구에서는 운주성주 공준과 왕건의 12번째 비(妃)가 되는 흥복원부인(興福院夫人)⁴⁰⁾ 홍씨의 아버지 홍규를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인물로 파악하고 있다.⁴¹⁾ 그 이유로 왕건의 개국 1등 공신에 책

34) 왕건의 1차 운주전투 승전에 대해 고려가 운주성을 함락하거나 혹은 운주지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윤용혁, 앞의 논문, 1997, 13쪽).

35) 류영철, 앞의 책, 2004, 216쪽.

36) 윤용혁, 앞의 논문, 2007, 20쪽; 양기석, 「洪城地域의 古代社會」 『百濟文化』 47,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2, 41쪽.

37) 『高麗史』 권82, 지36 병2 진수 태조 11년 4월, “城運州玉山 置戍軍”. 옥산을 평북 운산군에 위치한 산으로 보기도 하나(이기백·김용선, 『고려사 병지 역주』, 일조각, 2011, 202쪽), 취하지 않는다.

38) 윤용혁, 앞의 논문, 1997, 23쪽.

39) 김명진, 앞의 논문, 2015, 196쪽.

40) 『高麗史』 권88, 열전1 흥복원부인 홍씨, “洪州人 三重太匡規之女 生太子稷公主一後”.

41) 윤용혁, 앞의 논문, 1997, 25~26쪽; 김갑동, 앞의 논문, 2004, 152~155쪽(『고

봉된 홍유(洪儒)·배현경(裴玄慶)·신승겸(申崇謙)·복지겸(卜智謙) 등의 젊은 시절 이름이 각각 홍술(洪術)·백옥삼(白玉三)·능산(能山)·사괴(沙塊) 등이었으나, 이후 왕건으로부터 하사받아 개명된 점을 지목하고 있다.⁴²⁾ 즉 왕건이 운주의 완전한 확보를 위해 지역 세력가 공준과 연대하였고,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 어느 시기에 홍규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홍규와 공준은 비록 이름은 다르지만, 그들이 모두 홍주의 유력한 호족세력이었다는 점에서 동일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의 상황에서 개연성이 있는 견해지만, 단정하기에는 조심스런 면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사례로 제시한 왕건의 고려 건국에 기여한 1등 공신들을 보면 사성(賜姓)된 이름과 함께 초명이 기록되어 있다. 홍규의 관품이 삼중대광(三重太匡)에까지 오른 인물이고, 그의 딸이 왕건의 12번째 비가 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이름의 개명 사항에 대해서도 기록으로 남겨졌음직하다. 그러나 공준과 홍규의 경우는 그와 같은 점이 확인되지 않고, 동일인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기록 또한 부재하다. 공준과 홍규를 동일 인물로 보기 위해서는 공준에서 홍규로 개명이 이루어진 시점과 양자간의 관품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후삼국 통일전쟁의 마지막 최대 결전인 일리천전투에 홍규가 아닌 공준으로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 적어도 전투가 발발하던 936년 9월까지의 개명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때의 공적으로 개명이 이루어진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 전투 이후였을 것이다. 관품 역시 일리천전투시 대상에 있었던 것을 보면 이 전투시 세운 공적이나 그 뒤 특별한 공적을 인정받는 계기가 있었기에 삼중대광에 제수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의문점들이 해소되어야만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이 외에 유의해야 할 점은 1·2차 운주전투

려의 후삼국 통일과 후백제』, 서경문화사, 2010, 216~222쪽); 윤용혁, 앞의 논문, 2007, 18~19쪽.

42) 『高麗史』 권92, 열전5 홍유.

시 왕건에게 조력한 인물로 공준과 다른 홍규라는 인물의 존재 가능성이다. 예컨대 운주와 인접한 몽웅역(夢熊驛) 한씨(韓氏)와 같은 존재가 그러하다. 정해현(貞海縣 : 서산시 해미면)의 유래를 적은 기록에 따르면, “세전(世傳)하기를 태조시에 몽웅역리(夢熊驛吏)로 한씨 성을 가진 자가 큰 공이 있어 태광(太匡)을 하사하고, 고구현(高丘縣)의 땅을 떼어 현을 설치하고 그 관향(貫鄉)으로 삼았다.”⁴³⁾고 한다. 한씨의 경우처럼 통일전쟁에 기여한 공적으로 관품을 하사받은 인물이 홍규가 아니었던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공준과 홍규가 동일인이었다고 파악하는 기존 견해를 배제하지는 않으나, 보다 확실한 근거가 있기 전까지는 서로 다른 인물이었을 가능성에 보다 무게를 두고자 한다.⁴⁴⁾

3. 왕건과 견훤의 2차 운주전투

1차 운주전투가 종료되고 7년여 기간이 지난 934년에 2차 전투가 발발하였다. 2차 전투는 왕건이 운주의 세력이 공준과 싸웠던 것과 달리 후백제왕 견훤과 싸운 전투였다. 2차 전투의 기록은 1차 전투보다 다양하고 자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34년에 왜 또다시 전투가 발발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려주는 직접적인 기록은 부재하다. 1차 전투의 배경을 파악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930년을 전후하게 전개되

43) 『高麗史』 권56, 지10 지리1 홍주 정해현, “世傳 太祖時 夢熊驛吏韓姓者 有大功 賜號太匡 割高丘縣地 置縣 爲其貫鄉”.

44) 정청주는 공준과 홍규를 별개의 인물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양자를 각기 구분하여 서술하는 태도를 취하였다(鄭淸柱,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 一潮閣, 1996, 172쪽). 신호철은 양자를 동일 인물로 보는 것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신호철, 「高麗初 後百濟系 人物들의 활동」 『한국중세사연구』 22, 한국중세사학회, 2007, 100쪽).

고 있던 전쟁의 추이를 파악하는 가운데 전투의 배경과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927년 1차 운주전투 이후 고려와 후백제가 주도하던 후삼국 통일전쟁은 대구 팔공산에서 벌어진 공산전투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고려가 신라와 정치적으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강주지방을 점령하면서 남해안의 전략거점과 경북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병참운송망을 구축해가자, 수세에 몰린 후백제는 이를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방법은 신라의 왕도인 경주를 공격하는 과감한 전략으로 실행되었고,⁴⁵⁾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달려온 고려의 기병 5천은 공산전투에서 궤멸되었다.⁴⁶⁾ 후백제는 이를 계기로 고려가 장악하고 있던 송악과 나주를 연결하는 해상교통로를 장악하였다. 왕건이 935년(태조 18)에 신료들과 국사를 논의하던 자리에서 송악과 나주를 통항하는 해로가 불통된 지 6년이나 되었다고 개탄하며 이를 재개시킬 적임 장수로 유금필을 결정하였던 것은 이와 같은 상황으로 차단고 있던 전쟁의 추이를 반영한다.⁴⁷⁾

후백제가 나주로 통하는 항로를 통제하고, 경북 내륙지역에서 전쟁 우세권을 장악한 상황은 930년 봄 정월 경북 고창군(古昌郡 : 안동)에서 발발한 고창전투에서 다시금 반전을 맞이하였다.⁴⁸⁾ 왕건이 거느린 고려군은 이 전투에서 후백제군 8천 명을 살상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 전투의 결과는 안동 일대의 30여 군현의 항복과 명주(溟州 : 강릉)로부터 흥례부(興禮府 : 울산)에 이르는 신라의 동쪽 연해에 있던 110

45) 신성재, 앞의 논문, 2012(앞의 책, 2018, 37~38쪽).

46) 『高麗史』 권1, 세가1 태조 10년 9월. 공산전투의 배경과 전개 과정은 閔丙河, 「申崇謙과 公山桐藪 戰鬪」 『軍史』 29, 國防軍史研究所, 1994; 柳永哲, 「공산전투의 재검토」 『郷土文化』 第9-10合集(斗山 金宅圭 博士 停年紀念 郷土史論叢), 1995; 류영철, 앞의 책, 2004; 신성재, 앞의 논문, 2012 참조.

47) 『高麗史』 권92, 열전5 유금필.

48) 『高麗史』 권1, 세가1 태조 13년 춘 정월. 일명 병산전투로 불리기도 한다. 고창전투의 발발과 전개 과정은 柳永哲, 「古昌戰鬪와 後三國의 政世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7, 한국중세사학회, 1999(앞의 책, 2004); 문안식, 앞의 책, 2008 참조.

여성의 항복,⁴⁹⁾ 동해 바다 멀리 떨어진 우릉도(芋陵島 : 울릉도)가 북속해올 정도로⁵⁰⁾ 전쟁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고려가 고창전투에서 승리하여 경북 내륙지방과 신라 동해안의 대부분 지방을 장악하자 위기 상황에 빠진 후백제는 한동안 이를 타개할 방책 마련에 고심하였다. 그리하여 고창전투가 발발한 2년 뒤 후백제는 수군을 동원하여 고려의 예성강 수역을 기습하는 군사작전을 감행하였다.

9월에 견훤이 일길찬 相賁를 보내어 舟師로써 禮成江을 침입케 하였다. 塩·白·貞 3州의 선박 1백 척을 불태우고 猪山島에서 방목하던 말 3백 필을 탈취해 갔다.⁵¹⁾

일길찬 상귀(相賁)가 932년 9월에 감행한 후백제 수군의 예성강 수역 공략은 고려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겼다. 염주(塩州 : 황해도 연안) · 백주(白州 : 황해도 배천) · 정주(貞州 : 개성 풍덕)에 주둔하고 있던 고려의 선박 1백 척이 분멸되었다. 이때 손실된 고려의 선박에는 다수의 전함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려가 수군활동의 전략기지로 운영하던 정주가 공격받은 것은 너무나도 뼈아픈 손실이었다. 그런데 후백제의 예성강 수역 공략은 그 이상의 전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었다. 근래 후백제가 송악을 공격하여 왕건을 제거하고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수군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해석한 견해에 따르면,⁵²⁾ 박수경(朴守卿)이 왕건의 목숨을 극적으로 구한 것으로 전하는 발성전투(勃城戰鬪)에 주목한다.⁵³⁾ 발성전투의 발

49) 『高麗史』 권1, 세가1 태조 13년 2월.

50) 『高麗史』 권1, 세가1 태조 13년 秋 8월. 울릉도에서 백길과 토두를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자 고려는 백길에게 정위를, 토두에게는 정조의 품계를 하사하였다.

51) 『高麗史』 권2, 세가2 태조 15년, “九月 甄萱遣一吉榮相賁 以舟師入侵禮成江 焚塩白貞三州船一百艘 取猪山島牧馬三百匹而歸”.

52) 이도학, 앞의 책, 2015, 373~374쪽.

성이 왕건이 궁예의 치하에서 활동하던 896년 송악에 쌓은 발어참성(勃禦槓城)을 줄인 표기로⁵⁴⁾ 932년 당시 후백제군의 기습이 고려 왕성에까지 확대되어 전투가 벌어졌다고 한다. 즉 932년 전투는 후백제의 선단이 일제히 개경에 상륙하여 고려의 왕궁을 포위 공격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발성전투에서 위기에 몰린 왕건을 박수경이 분전하여 구했다고 한다.⁵⁵⁾ 상귀가 이끈 후백제의 수군활동이 고려와 국왕 왕건의 안위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일깨워준다.

한편 후백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후속 작전을 계획하였다. 고려의 왕도와 예성강 수역을 공략하여 심각한 타격을 입힌 1개월 뒤, 곧바로 대우도(大牛島)와 그 주변 해역을 공략하는 수군활동을 전개하였다.

겨울 10월에 견훤이 海軍將 尙哀 등으로 大牛島를 攻掠케 하였다. (왕건이) 大匡 萬歲 등에게 명하여 구하게 하였으나 불리하였다.⁵⁶⁾

상애(尙哀)가 지휘한 대우도 공략에서 주목해볼 점은 후백제 수군이 공격한 대우도의 존재이다. 이 섬의 위치에 대해서는 마치 소가 누워 있는 형상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 『한국지명유래집』의 서술 내용에 의지하여⁵⁷⁾ 현재의 충남 서산시 지곡면 도성리 앞바다에 위치한 섬으로 추정할 견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⁸⁾ 이 위치는 서해 중부해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나주로 들어서는 서남해역과 고려의 예성강 수역으로 통하는 중간 해역에 위치한다.⁵⁹⁾ 서해 중부와 북부 해

53) 『高麗史』 권92, 열전5 박수경.

54) 『高麗史』 권1, 태조 건녕 3년. ‘禦槓’은 적을 방어하기 위한 참호 즉 垓字가 있는 성의 구조를 의미한다(이도학, 앞의 책, 2015, 375쪽).

55) 이도학, 앞의 책, 2015, 376~377쪽.

56) 『高麗史』 권2, 세가2 태조 15년, “冬十月 甄萱海軍將尙哀等 攻掠大牛島 命大匡萬歲等 救之不利”.

57)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충청편)』, 2015, 481~482쪽.

58) 신성재, 『후삼국시대 수군활동사』, 혜안, 2016, 91·145·179쪽. 대우도의 위치에 대한 여러 견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신성재, 앞의 책, 2018, 187~189쪽 참조.

역으로 해상권을 확대하고자 하던 후백제의 입장에서 고려의 수군을 견제하고자 한다면 그 중간 해역에 위치한 도서나 해안지방을 확보하여 교두보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대우도처럼 그 중간에 위치한 도서를 확보하면 인접한 서산, 당진 등 해안지방으로 진출하여 이 지역들을 차례로 점수하는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 나아가 인접한 홍성지방과 예산, 아산 등 고려와 침예하게 지배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던 지역들까지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후백제가 대우도를 공략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와 같은 군사력 운용의 전략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운주지방은 후백제의 수군이 대우도를 공격, 서해 중부해역을 위협해오던 932년 즈음에 고려의 수중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싶다.⁶⁰⁾

후백제가 서해 중부해역으로 해상권을 확대하고 대우도를 공략하면서 서해안과 인접한 서산·당진·운주지방까지 잠식해오자 고려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였다. 고려의 명장 유금필이 백령도에서 벌인 수군활동을 통해 그 대응의 실상을 추정해봄직하다.

14년(931)에 참소를 당하여 鵠島로 귀양을 갔다. 이듬해에 견훤의 海軍將 尙哀 등이 大牛島를 공략하므로 태조가 大匡 萬歲 등을 보내어 구원하게 하였으나 불리하였다. 태조가 이를 근심하고 있었는데, 黔弼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신이 비록 죄를 지어 귀양살이를 하고 있지만, 백제가 우리 해안지방을 침탈한다는 소문을 듣고 本島와 包乙島의 丁壯을 선발하여 군대에 충원하고 또한 전함을 수리하여 방어하게 하였으니 원컨대 주상께서는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하였다.⁶¹⁾

59) 신성재, 「고려와 후백제의 해양쟁패전」 『한국중세사연구』 47, 한국중세사학회, 2016(앞의 책, 2018, 189쪽).

60) 김갑동, 앞의 논문, 2004, 148쪽.

61) 『高麗史』 권92, 열전5 유금필, “十四年 被讒竄于鵠島 明年 甄萱海軍將尙哀等 攻掠大牛島 太祖遣大匡萬歲等往救不利 太祖憂之 黔弼上書曰 臣雖負罪在貶 聞百濟侵我海鄉 臣已選本島及包乙島丁壯 以充軍隊 又修戰艦以禦之 願上勿憂”.

위는 931년(태조 14)에 정치세력들로부터 참소를 당해 곡도(鵠島 : 백령도)로 귀양간 유금필이 후백제 수군이 대우도를 공략해오던 시기에 마련한 방책을 전하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유금필이 마련한 대응책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이는 곧 고려가 마련한 대후백제 해상방어책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후백제의 해상 침탈에 대응하여 고려가 마련한 방어책은 크게 두 가지였다. 고려는 우선적으로 후백제 수군의 재침에 대비하여 백령도와 포을도(包乙島 : 대청도)를 연결하는 해상방어망을 구축하였다.⁶²⁾ 이는 외해측에 위치한 백령도와 내측의 포을도, 인근에 산재한 소도서, 그리고 염주와 백주, 정주를 연결하는 형태로 구축되었다. 고려는 해상방어망 구축과 더불어 수군을 실질적으로 재건하는 대책도 시행하였다.⁶³⁾ 해전을 담당하는 수군병력을 확충하고 상실된 전함을 수리 및 건조하였다. 백령도와 대청도에 거주하던 “정장(丁壯)을 선발하여 군대에 충원하고 전함을 수리하여 방어하게 하였다”고 하는 기록은 고려가 마련한 해상방어책의 실상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고려는 서해 중부해역과 충남 서해안 지방에 집중된 후백제의 군사활동을 억제하고, 당 해역의 해상권을 다시금 확보하면서 대후백제전에서 전세를 전환시키는 방책을 수립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직접적인 기록이 부재하여 추정에 의존하지만, 이로부터 2년 뒤인 934년에 운주지방에서 전투가 발발하고 있음은 그 가능성을 높여준다 하겠다. 이 점에 주목하여 고려 태조 왕건이 2차 운주전투를 벌였던 이유를 해석하자면, 천안과 예산, 아산 일대를 공고하게 한 뒤 운주를 점령하여 부근의 육상로는 물론 해상로까지 봉쇄함으로써⁶⁴⁾ 그동안 막혀 있던 송악-나주간의 해상교통을 재개하고 후삼국 통일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짐작된다. 실제 2차 운주전투가

62) 신성재, 앞의 논문, 2016(앞의 책, 2018, 189쪽).

63) 위와 같음.

64) 주 60)과 같음.

발발한 이듬해 935년에 왕건의 명을 받은 유금필이 나주를 탈환하면서 서남해역 해상교통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은⁶⁵⁾ 이보다 선행하여 충남 서해안 앞 바다를 통항하는 해상교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처럼 2차 운주전투는 왕건이 서해상에 대한 해상권을 다시금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일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배경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7년(934)에 태조가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운주를 정벌하고자 하여 黔弼을 右將軍으로 삼았다. 견훤이 이를 듣고 甲士 5천을 뽑아 이르러 말하기를, ‘양군이 서로 싸우면 세를 모두 보전하지 못할 것이고, 무지한 사졸들만 많이 살상될까 염려된다. 마땅히 화친을 맺어 각자의 封境을 보전합시다’ 하였다. 태조가 제장들과 모여 이를 논의하자 금필이 말하기를, ‘오늘의 세는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컨대 주상께서는 염려치마시고 신들이 적을 격파하는 것이나 보십시오’ 하였다. 마침내 견훤이 진을 치지 못한 틈을 타 勁騎 수 천으로 이에 돌격하여 3천여 급을 참획하고 術士 宗訓, 醫師 訓謙, 勇將 尙達·崔弼을 생포하였다. 熊津 이북의 30여 성이 이 소식을 듣고 스스로 항복하였다.⁶⁶⁾

934년(태조 17) 운주에서 2차 전투가 발발하였다. 이 전투의 보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위 기록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려사』 세가와 『고려사절요』의 기록에 9월에 있었던 일로 기록된 것을 보면⁶⁷⁾ 934년 9월에 발발하였던 전투로 정리할 수 있겠다. 물론 9월이 아닌 같은 해 봄 정월에 발발한 것으로 쓰여진 기록도 있다.⁶⁸⁾ 그러나 934년 봄 정월에 왕건은 운주가 아닌 서경(西京)에 있었다.⁶⁹⁾

65) 『高麗史』 권92, 열전5 유금필.

66) 『高麗史』 권92, 열전5 유금필, “十七年 太祖自將征運州 黔弼爲右將軍 甄萱聞之 簡甲士五千至曰 兩軍相鬪 勢不俱全 恐無知之卒 多被殺傷 宜結和親 各保封境 太祖會諸將議之 黔弼曰 今日之勢 不容不戰 願上觀臣等破敵勿憂也 遂乘萱未陣 以勁騎數千突擊之 斬獲三千餘級 擒術士宗訓醫師訓謙勇將尙達崔弼 熊津以北三十餘城 聞風自降”.

67) 『高麗史』 권2, 세가2 태조 17년 9월; 『高麗史節要』 권1, 太祖神聖大王 17년 秋 9월.

68) 『三國史記』 권59, 열전10 견훤.

북방 지역의 안위를 염려해 여러 진들을 순행하였다. 또 9월에 노인성(老人星)이 나타난 현상과 연이어 전투 직후 운주의 경계 30여 군현이 왕건에게 항복했다는 내용이 전하는 기록⁷⁰⁾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전투가 9월에 발발했음은 분명하다.⁷¹⁾

왕건은 2차 운주전투를 결행하기에 앞서 전투 준비를 치밀하게 실시하였다. 그는 우선적으로 934년 봄에 북방의 주진들을 순시하여 서경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체제를 점검하였다. 그런 다음 5월에는 운주와 인접한 예산진(禮山鎭)에 행차하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내가 비바람을 무릅쓰고 주진들을 돌아다니면서 정책을 수리하는 것은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도적들의 난을 면하게 하려는 것”⁷²⁾이라며 순행의 취지를 설교하였다. 이는 내포 지역민들의 결집과 협조를 얻기 위한 것이자,⁷³⁾ 동시에 후백제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민심을 고려측으로 유인하는 대민 홍보작전이기도 하였다.⁷⁴⁾ 이와 함께 왕건은 공경(公卿)·장상(將相)과 지역 세력가들이 그동안 백성을 대상으로 자행해오던 자의적 수탈의 문제점을 훈계하는 한편 신상필벌을 엄격히 시행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신하된 자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역설하였다.⁷⁵⁾ 이후 왕건은 동년 7월에 발해국 세자 대광현(大光顯)이 민중 수만 명을 거느리고 귀부해오자 그를 왕실 족보에 등록하고, 함께 온 군사들과 더불어 백주의 일을 관장하도록 하였다.⁷⁶⁾ 이는 후백제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던 고려의 수군 전력을 확충하고 백주를 비롯한 염주·정주의 해상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⁷⁷⁾

69) 『高麗史』 권2, 세가2 태조 17년 春 정월, “甲辰 行西京 歷巡北鎭”.

70) 『三國史記』 권12, 경순왕 8년 秋 9월, “老人星見 運州界三十餘郡縣 降於太祖”.

71) 김갑동, 앞의 논문, 2004, 147~148쪽.

72) 『高麗史』 권2, 세가2 태조 17년 夏 5월, “乙巳 幸禮山鎭 詔曰 … 櫛風沐雨 巡省州鎭 修完城柵 欲令赤子 得免綠林之難”.

73) 윤용혁, 앞의 논문, 1997, 24쪽.

74) 윤용혁, 앞의 논문, 2007, 15쪽.

75) 주 72)와 같음.

76) 『高麗史』 권2, 세가2 태조 17년 秋 7월.

왕건과 견훤이 대결한 2차 운주전투는 왕건의 완승으로 끝났다. 고려군이 완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형세적인 측면에서나 전투 전술적인 측면에서 고려군이 후백제군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려군이 후백제군에 비해 형세 면에서 우위에 있었던 것은 유금필이 말한, “오늘의 세는 싸우지 않을 수 없으니 주상께서는 염려치 마시고 신들이 적을 격파하는 것이나 보십시오.”라는 확신에 찬 언사를 통해 확인된다. 이는 거꾸로 견훤이 “양군이 서로 싸우면 세를 모두 보전하지 못할 것이고, 무지한 사졸들만 많이 살상될까 염려된다. 마땅히 화친을 맺어 각자의 봉경(封境)을 보전함시다.”며 화친을 제안한 것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형세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던 견훤이 화친을 명목으로 전투를 회피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군이 후백제군에 비해 형세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였다. 먼저 고려군은 전투 능력이 뛰어난 군사들을 적극 동원하였다. 특히 유금필이 지휘한 수천 명의 군센 기병들로 구성된 경기(勁騎)는 운주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이었다. 이들은 고려가 건국되던 초기부터 운용하던 기병에 북방지역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투항해온 여러 이 민족 출신의 기병들이 포함된 군사들이었다.⁷⁷⁾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고려군의 총 병력은 동원된 경기가 수천 명이었음을 통해 볼 때 최소 5천 명 이상은 상회하였을 것이다.⁷⁸⁾ 후백제 역시 뛰어난 기량을 지닌 군사들을 동원하였다. 이들은 갑사(甲士)로 지칭되었는데,⁸⁰⁾ 후백제의 군사들 중 중무장한 정예군이었을 것이다.⁸¹⁾ 이들은 고려군이

77) 신성재, 앞의 논문, 2016(앞의 책, 2018, 191~192쪽).

78) 신성재, 「고려 태조대 명장 충절공 유금필」 『軍史』 1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앞의 책, 2018, 108~109쪽).

79) 김명진, 앞의 논문, 2015, 200쪽.

80) 후백제군 갑사 5천을 보병으로 파악하면서 이 병력 중 고려의 기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일정 정도 장창을 소지한 인원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주 79)와 같음]. 이렇게 본다면 후백제군은 운주전투에 보병만을 출정시킨 셈이 된다. 갑사로 지칭된 후백제군에 대해서는 단일한 보병 병종으로 보기보다는 중무장한 보병을 기병보다 많이 편성한 부대로 이해함이 어떨까 싶다.

기병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데 비해 보병과 기병이 혼합된 형태로 구성되었던 것 같다. 이러한 병력 구상상의 차이점이 진형과 전술 구사 문제와 맞물려 승패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 같다. 고려군은 형세 면에서 또 하나 유리한 부분을 선점하고 있었다. 이는 “견훤이 태조가 운주에 주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갑사를 선발하여 부랴부랴 이르렀다.”⁸²⁾는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후백제군이 고려군보다 뒤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⁸³⁾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지 못한 전술적 실책은 진영을 미처 설치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유금필은 전투에 앞서 후백제군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후백제군이 형성하고 있던 진영의 취약한 부분을 간파하고, 그곳에 기동력과 돌파력이 우수한 경기를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면 승산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⁸⁴⁾ “견훤이 진을 치지 못한 틈을 타 경기 수천으로 이에 돌격하여 3천여 급을 참획하였다”고 하는 기록은 후백제군에 노출된 취약한 부분을 간파하고 기동타격 능력이 뛰어난 경기를 활용하는 용병술을 적극 구사하였음을 말해준다.⁸⁵⁾ 유금필은 이 전투에서 다수의 후백제군을 살상함은 물론 책사 임무를 담당하던 술사(術士) 종훈(宗訓), 군사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 훈겸(訓謙), 용맹한 장수 상달(尙達)·최필(崔弼) 등을 생포하였다. 술사 종훈, 의사 훈겸과 같은 인물들이 중군에 위치하여 견훤을 보좌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에서는 용장 상달과 최필은 중군에 있던 견훤과 이들을 끝까지 호위

81) 이도학, 앞의 책, 2015, 392~394쪽. 경장갑을 착용한 군사들로 서술하기도 한다 (임용한, 앞의 책, 2001, 355쪽).

82) 『三國遺事』 권2, 기이2 후백제 견훤. “淸泰元年甲午 萱閨太祖屯運州 遂簡甲士 蓐食而至 未及營壘 將軍黔弼以勁騎擊之 斬獲三千餘級

83) 견훤이 운주에 당도했을 때 이미 고려군이 운주를 장악한 상태였던 것으로 서술하기도 한다(윤용혁, 앞의 논문, 2007, 17쪽).

84) 신성재, 앞의 논문, 2017(앞의 책, 2018, 107~108쪽).

85) 위와 같음.

하던 과정에서 사로잡히게 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기병을 활용한 유금필의 공세적 전술에 따라 왕건은 이 전투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반면 견훤은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

왕건과 견훤이 대결한 2차 운주전투는 충남지역을 둘러싼 고려와 후백제의 각축전에서 고려의 패권을 확실히 결정짓는 분수령이 되었다.⁸⁶⁾ 전투에서 승리한 고려는 항복해온 웅진(熊津 : 공주) 이북의 30여 성을 접수하면서 웅주와 운주 등 충청지역을 석권할 수 있게 되었다.⁸⁷⁾ 뿐만 아니라 그동안 후백제에게 빼앗겼던 서해상에 대한 해상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송악과 나주를 오가는 해상 교통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결국 이듬해 나주로 연결되는 항로의 실질적인 개통을 가능케 하였고, 나주로 도망해온 견훤이 해로를 거쳐 고려 왕조로 입조하는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다.⁸⁸⁾ 이에 반해 후백제는 웅진 이북의 지방들을 상실당함으로써 충청지역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고, 지배 영역마저 축소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서해상의 해상권을 상실당하는 위기에 처해짐은 물론 고려와의 전쟁 의지 또한 크게 약화되었다. 견훤이 병신(丙申) 정월에 “병사는 북군(北軍)보다 배나 되는데도 오히려 이처럼 불리하니 아마도 하늘이 고려를 도우는 것 같다. 어찌 북쪽의 왕에게 귀순해서 생명을 보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⁸⁹⁾라며 아들들에게 드러낸 발언은 그 시점이 명확치 않지만, 운주전투 패배 이후로 조성되고 있던 후백제의 정국 동향을 반영하는 사실이 아닌가 여겨진다.⁹⁰⁾

86) 윤용혁, 앞의 논문, 2007, 17쪽.

87) 이 때 고려가 접수한 30여 군현은 홍주와 공주 소속의 속군현, 서산지역의 속현 등이 포함되었다(김갑동, 앞의 논문 2004, 149쪽).

88) 『高麗史』 권2, 세가2 태조 18년 6월.

89) 『三國遺事』 권2, 기이2 후백제 견훤, “丙申 正月 萱謂子曰 老夫新羅之季 立後百濟名 有年于今矣 兵倍於北軍 尙爾不利 殆天假手爲高麗 盍歸順於北王 保首領矣”.

90) 병신 정월은 태조 19년으로 936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시기는 고려가 통일을 목전에 둔 시점으로 견훤은 이미 고려로 귀부해 있었다. 시점상 오류가 있지만, 대략 934년 말 ~ 935년 초의 상황을 반영하는 기록이 아닐까 추정된다.

이와 같이 2차 운주전투의 결과는 고려와 후백제가 자웅을 겨루던 후삼국 통일전쟁의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고려 태조 왕건은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충청지역을 장악하고 후삼국 통일의 주인공이 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해륙상의 주요 전략거점을 상실당하게 된 후백제왕 견훤은 이 전투를 기점으로 급격히 집권력이 약화되면서 정변이 발생하고, 마침내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4. 맺음말

운주전투는 공산전투, 고창전투와 더불어 후삼국 통일전쟁의 흐름에 분수령이 될 정도로 결정적인 전투였다. 이 전투는 927년 3월과 934년 9월에 걸쳐 2회 발발하였다. 편의상 이 글에서는 전자를 1차 운주전투, 후자를 2차 운주전투로 명명하였다.

1차 운주전투가 발발하던 시기 충청지역은 후백제를 지지하던 상황으로 정치적 입장이 변화된 상태였다. 원래 충청지역의 주요 지방들은 궁예가 집권하던 시기까지 궁예정권에 귀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속해 있던 운주는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운주의 이와 같은 노선에 변화가 발생한 것은 918년이였다. 왕건이 918년 6월에 거병하여 고려를 건국하자 운주는 동년 8월에 후백제를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새롭게 고려가 건국된 어수선한 정국에서 운주성주 궁준은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후백제를 선택하였다.

왕건과 궁준 간 1차 운주전투는 왕건이 운주를 복속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전략적으로는 경남 남해안과 경북 내륙을 연결하는 병참운송망을 구축함으로써 후백제의 군사활동을 봉쇄하고 통일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배경하에서 발생하였다. 해륙상의

전략거점을 둘러싸고 전개되던 후삼국 통일전쟁의 흐름 속에서 왕건이 운주를 정벌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결과는 왕건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전투에서 패배한 공준은 고려 정부에 귀부하여 신하가 되었다. 왕건은 공준이 떠난 자리에 고려에 우호적인 세력가를 성주로 임명하고 인근 옥산에 축성한 다음 군사들을 배치하였다. 이는 후백제와 전쟁에서 방어망을 공고히 하는 한편 운주성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고려한 것이었다.

운주성주 공준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의 세력가이자 왕건의 12번째 비가 되는 흥복원부인의 아버지 흥규를 동일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왕건이 사성정책을 통해 지역 호족세력들과 연대한 점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운주전투 시 왕건에게 조력을 제공한 인물로 흥규가 존재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확실한 근거가 부족한 이상 양자가 서로 다른 인물이었음에 무게를 둔다.

1차 전투가 종료되고 7년이 경과한 934년 9월에 왕건과 견훤 간 2차 운주전투가 발발하였다. 2차 전투는 930년대 고려와 후백제가 해륙상으로 추진하던 통일전쟁의 흐름 속에서 발발하였다. 1차 운주전투를 계기로 고려가 장악한 전쟁 주도권은 927년 공산전투에서 참패를 당하면서 후백제로 넘어갔다. 그러나 고려는 930년 초 고창전투에서 대승함으로써 다시금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후백제는 고려의 예성강 수역을 공략하면서 전세를 다시금 역전시키고 서해상의 해상권을 장악하였다. 나아가 운주를 비롯한 서해안 지방을 장악하여 고려의 수군활동을 위축시켰다. 2차 운주전투는 고려가 서해상으로부터 가중되고 있던 후백제의 위협을 제거하고 다시금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던 상황 속에서 발발하였다.

왕건과 견훤이 대결한 2차 운주전투는 왕건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고려군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형세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 모두 우위를 점하였기 때문이었다. 고려군이 기동력과 돌파력이

뛰어난 기병 중심의 병종체제로 대응하였음에 비해 후백제군은 보병과 기병이 혼합된 중무장한 갑사로 대응하였다. 또한 후백제군은 뒤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전투의 유리한 지형을 점유하지 못했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지 못한 전술적 실책은 진영을 미처 설치하지 못한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시켰다. 고려의 명장 유금필은 후백제군의 전술적 취약점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후백제군의 취약점이 노출된 곳에 기동력과 돌파력이 우수한 경기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대응을 거두었다. 기병력을 활용한 유금필의 공세적 전술에 따라 왕건은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던 반면 견훤은 참담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

2차 운주전투는 충남지역을 둘러싸고 전개된 고려와 후백제의 각축전에서 고려의 패권을 확실하게 결정짓는 분수령이 되었다. 전투에서 승리한 고려는 웅진 이북의 30여 성을 접수하면서 충청지역을 석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후백제에게 빼앗겼던 서해 해상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통일전쟁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에는 이렇게 확보한 서해안 항로를 경유하여 후삼국을 통일하는 대업을 이룩하기에 이른다. 이에 비해 후백제는 지배영역이 축소되고, 해상권마저 상실당하면서 전쟁의 의지 또한 현격히 약화되었다. 결국 해륙상의 주요 전략거점을 상실한 후백제왕 견훤은 이 전투를 기점으로 급격히 집권력이 약화되면서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원고투고일 : 2018. 12. 14, 심사수정일 : 2019. 2. 1, 게재확정일 : 2019. 2. 14)

주제어 : 후삼국 통일전쟁, 운주, 왕건, 견훤, 금준, 유금필

<참 고 문 헌>

1.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新增東國輿地勝覽』

2. 저서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충청편)』, 2015.

김갑동,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후백제』, 서경문화사, 2010.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혜안, 2014.

류영철,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研究』, 景仁文化社, 2004

文暲鉉, 『高麗太祖의 後三國統一研究』, 螢雪出版社, 1987.

문안식, 『후백제 전쟁사 연구』, 혜안, 2008.

신성재, 『후삼국시대 수군활동사』, 혜안, 2016.

신성재, 『후삼국 통일전쟁사 연구』, 혜안, 2018.

申虎澈, 『後三國時代 豪族研究』, 개신, 2002.

이기백·김용선, 『고려사 병지 역주』, 일조각, 2011.

이도학, 『궁예 진훤 왕건과 열정의 시대』, 김영사, 2000.

이도학, 『후삼국시대 전쟁 연구』, 주류성, 2015.

임용한, 『전쟁과 역사 - 삼국편』, 혜안, 2001.

鄭淸柱, 『新羅末 高麗初 豪族研究』, 一潮閣, 1996.

조인성, 『태봉의 궁예정권』, 푸른역사, 2007

3. 연구논문

金甲童, 「高麗建國期の 清州勢力과 王建」 『韓國史研究』 48, 韓國史研究會, 1985.

김갑동, 「百濟 이후의 禮山과 任存城」 『百濟文化』 28,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원, 1999.

- 김갑동, 「고려초기 홍성지역의 동향과 지역세력」 『史學研究』 74, 韓國史學會, 2004.
-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공준의 역할」 『軍史』 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 柳永哲, 「공산전투의 재검토」 『鄉土文化』 第9·10合集(斗山 金宅圭 博士 停年 紀念 鄉土史論叢), 1995.
- 柳永哲, 「古昌戰鬥와 後三國의 政世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7, 한국중세사학회, 1999.
- 閔丙河, 「申崇謙과 公山桐藪 戰鬥」 『軍史』 29, 國防軍史研究所, 1994.
- 서금석, 「弓裔의 國都 선정과 國號·年號 제정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42, 한국중세사학회, 2015
- 신성재, 「일리천전투와 고려 태조 왕건의 전략전술」 『韓國古代史研究』 61, 한국고대사학회, 2011
- 신성재, 「궁예정권의 철원 천도와 전쟁사적 의미」 『韓國史研究』 158, 韓國史 研究會, 2012.
- 신성재, 「고려와 후백제의 공산전투」 『한국중세사연구』 34, 한국중세사학회, 2012.
- 신성재, 「고려와 후백제의 해양쟁패전」 『한국중세사연구』 47, 한국중세사학회, 2016.
- 신성재, 「고려 태조대 명장 충절공 유금필」 『軍史』 1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 申虎澈, 「弓裔의 政治的 性格」 『韓國學報』 29, 一志社, 1982.
- 申虎澈, 「弓裔와 王建과 淸州豪族」 『中原文化論叢』 2·3, 忠北大中原文化研究所, 1999.
- 신호철, 「高麗初 後百濟系 人物들의 활동」 『한국중세사연구』 22, 한국중세사학회, 2007.
- 양기석, 「洪城地域의 古代社會」 『百濟文化』 47,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2.
- 윤용혁, 「지방제도상으로 본 홍주의 역사적 특성」 『홍주문화』 13, 홍성문화원, 1997.
- 윤용혁, 「936년 고려의 통일전쟁과 개태사」 『韓國學報』 114, 一志社, 2004.
- 윤용혁, 「나말여초 洪州의 등장과 運州城主 兢俊」 『한국중세사연구』 22, 한국중세사학회, 2007.
- 丁善容, 「弓裔의 勢力形成 過程과 都邑選定」 『韓國史研究』 97, 韓國史研究會, 1997.

<Abstract>

The Unification War of the Later Three Kingdoms and the Battle of Unju

Shin, Seong-Jae

The battle of Unju was a decisive battle that marked a watershed in the unification war of the Later Three Kingdoms. The battle broke out twice in March 927 and September 934. The first battle in 927 was fought by Wang Geon and Geung Jun, lord of Unju, and the second by Wang Geon and Gyeon Hwon.

The first battle broke out for Wang Geon to subjugate Unju. The battle also aimed to block Later Baekje's military activities and dominate the unification war by establishing logistics network linking the southern coast of Gyeongsangnam-do and the interior of Gyeongsangbuk-do. It resulted in Wang Geon's victory. Defeated in the battle, Geung Jun defected to Goryeo, while Wang Geon built a fortress at Oksan where he deployed troops. Geung Jun, lord of Unju, is thought to be the same person as Hong Gyu who was the father of Wang Geon's twelfth queen, Madam Heungbok although it is difficult to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he was a different person.

Seven years after the first battle, the second battle broke out in September 934. The second battle was fought for hegemony in the Chungcheong area and the West Sea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 maritime power and the strategic value of Unju were closely related. The second battle ended with one-sided victory of Wang Geon. Goryeo could win the battle because it concentrated on maneuvering strong cavalry that excelled in mobility and penetration. Wang Geon won a perfect victory following Yu Geumpil's offensive strategy that utilized the cavalry whereas Gyeon Hwon was bitterly defeated.

The second battle became a watershed for Goryeo to certainly dominate

the heated war over the Chungcheong area. Having won the victory, Goryeo became able to lead the unification war by conquering the Chungcheong area and securing maritime power in the West Sea. Meanwhile Later Baekje suffered downsizing of its ruling territory and loss of maritime power thereby its will to win the war being remarkably weakened. In the end Later Baekje began to walk down the road of collapse, having lost its hegemony since this battle.

Key words : The Unification War of the Later Three Kingdoms, Unju, Wang Geon, Gyeon Hwon, Geung Jun, Yu Geumpil